

# 탐라 百年之大計 불사...

(백년지대계)

제주도 前 서귀포불교대학장 현수언



현수언 前 학장은 ... 1935년 서귀포시 남원읍 수암리 출생했다. 1955년 초등학교 교편생활 시작했으며 1976년 서귀포서회 동호회 회장으로서 서예생활을 시작했고, 소암 현종화 선생으로부터 17년 간 서예를 배웠다. 2000년 서귀포불교대학 1기로 입학해 2003년 서귀포불교대학 학장에 취임했다. 학장을 역임하면서 경전 암송대회, 수계법회 1080배 실시, 매년 설악산 오세암·봉정암 성지순례, 매일 격일로 신행·산행법회 봉행, 성도제일을 앞두고 철야정진 수련회 개최, 사경노트 제작 등 2013년 퇴임까지 9년 8개월 동안 면학 분위기를 조성해 명문불교대학으로 부상에 노력했다. 2009년 분타대상을 수상했으며, 2005년부터 제주를 찾는 신혼부부 1700여명에게 자신이 쓴 휘호를 선물했다. 매해 입춘절마다 '입춘대길' 휘호를 지인들에게 선물하며 서예를 수행의 방편으로 삼고 있다.

1990년 후반 2000년 초에 접어들면서 제주지역에 '불교대학' 설립 붐이 조성됐다. 제주지역 불자들이 정법불교를 통해 '기복신앙'에서 벗어나 '참 불자'의 언덕을 건널 수 있는 길이 열린 셈이다. 특히 인구 16만의 소도시 서귀포시 유일의 '서귀포불교대학'은 지난 2000년 4월 문을 연 후 지금까지 2천명이 넘는 졸업생을 배출했다. 서귀포시장을 비롯해 기관단체장, 지역 유지 등도 서귀포불교대학을 나오지 않으면 지역 내 교류가 형성되지 않을 정도로 서귀포불교대학의 위상과 명성은 높다. 타 종교인들도 불교를 알고자 문을 두드릴 정도다. 서귀포 불교대학이 '제주 불교대학의 메카'가 될 수 있었던 데는 종단을 초월해 지역 스님들이 교수협의회를 구성하고 대학 강의와 신행활동에 도움을 주는 시스템이 주효했다. 또한 그 중심에는 2003년 7월 학장을 맡아 2013년 3월까지 9년 8개월 동안 서귀포불교대학과 함께한 현수언(80) 前 학장이 있었다.

**불교에 대한 욕망... 불교대학 1기 입학**  
초등학교 교편을 잡고, 취미 생활로 서예를 즐겼던 현 前 학장은 처음부터 열렬한 불심을 가진 불자는 아니었다. 초하루에 아내를 절에 데려다 주는 것 외에는 사찰에 가본 적이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서귀포시 법화초 교장 퇴임을 앞둔 무렵이었다. 현 前 학장은 "당시 교편을 잡고 있던 법화초 어머니회장이 바로 불자 밸런트 고두심 씨의 친동생 고두실 씨였다"며 "친하게 지내는 지인 역시 독실한 불자였다. 자연스럽게 법우들과 함께 한마음선원 제주지원과 해국 스님이 창건한 남국선원 등을 참배하면서 불심이 조금씩 싹트기 시작했고, 정년퇴임 후에는 사찰을 순례하면서 나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면서 자연스레 불자가 됐다"고 회상했다.

당시만 해도 사찰에 가면 불교에 대한 기본교리를 가르치는 과정이 전무했던 터라 현 前 학장은 불교에 대한 욕망이 가득했다. 1999년 정년퇴임 후 2000년 3월 불교대학이 개설하자마자 바로 입학신청을 했다. 1년 동안 불교대학에 입학, 불교에 대해 알아가며 그는 자신의 인생을 바르게 회상하고 싶다는 마음이 간절해졌다. 또 서귀포시의 저명한 서예가소암 현종화 선생으로부터 서예를 배웠던 그는 불교대학 졸업 후 약천사에 머물면서 매일같이 법구경과 경전 등을 사경하며 불심을 돈독히 쌓아나갔다. 한지에 먹물 들 듯 그렇게 현 전 학장에게는 시나브로 불자의 색이 입혀졌다. "당시 약천사 주지 성공 스님은 대보름이 되면 경내에서 달빛축제를 열었어요. 졸업일지 모르지만 저 나름대로 정성껏 부처님의 말씀을 부처에 써서 그날 오시는 분들에게 선물로 20~30개를 보시했더니 많은 분들이 좋아하셨습니다. 불자로서의 첫 작품 활동이었던거죠."

"서귀포불교대학의 구원투수가 돼 달라" 붓으로 글감경 전편을 사경하는 등 불심이 타오를 무렵, 현 前 학장은 뜻하지 않은 전화를 받게 됐다. 당시 서귀포불교대학 교수협의회장이었던 시몽 스님(前 부회사 주지)으로부터 서귀포불교대학장을 맡아달라는 전화였다. 그가 사찰에서 수행하는 모습을

지켜봤던 시몽 스님이 현 씨를 서귀포불교대학을 이끌 적임자라고 눈여겨 본 것이다. 당시 평균 40여명을 웃돌았던 입학생들이 8~9기에 접어들면서 10여명으로 급감했고, 서귀포불교대학에게는 급한 불을 꺼 줄 수 있는 구원투수가 필요했던 셈이다. "처음에는 불교대학을 일으켜 세워야 한다는 부담감 때문에 망설였지만 끝내 수락을 했죠. 입학생 모집이 당장 발에 떨어진 불이었기 때문에 40여 곳의 사찰을 순회하며 스님들에게 신도들의 불교대학 입학 권유를 입일이 당부했습니다." 효과는 바로 나타났다. 10기는 35명, 11기는 49명이 입학하는 등 입학생 숫자는 점차 늘어갔다. 그래도 긴장감을 늦출 수 없었다. 불교대학에 강의를 받으러 오는 학생들마다 대학 입구에서 입일이 약속을 청하며 고맙다는 말을 전했다. 입학생들의 불교에 대한 호감도는 자연스레 높아졌다. 점차 학생들이 증가함에 따라 약 30평에 지나지 않았던 기존의 강의실이 비좁아졌다. 서귀포시 서흥재

됐어요. 바로 불법을 널리 퍼라는 부처님의 가르치요. 그 일로 오히려 학생들에게 더욱 힘 쏟을 수 있는 전화위복이 됐지요."

**명문불교대학으로서 부상**  
이후 서귀포불교대학은 불교를 공부하고 싶어하는 서귀포시민들의 갈증을 해소하며 명문불교대학으로 부상하게 된다. 결국 80명도 모자라 90명으로 입학 정원을 늘려도 대기자가 밀려 2~3년 동안 적체되는 현상까지 빚어졌다.

현수언 학장은 서귀포불교대학에 교육과정을 확실하게 뿌리내렸다. 학생들이 힘든 수행 과정을 몸소 체험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수행의 기회를 제공한 것이다. 서귀포불교대학생이 되면 졸업한 한 달여 앞두고 수계법회가 봉행된다. 그동안 알게 모르게 지었던 죄업을 1080배를 통해 참회하면 수계증을 받을 수 있다.

현 前 학장은 수계법회 날 1080배를 하는 이유에 대해 "수계는 진정한 계율의 상징이자 '참 불자'가 되는 첫 걸음"이라며 "이를 불교대학에서 이룬 공부를 했다고 받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자신의 참 본래 모습을 발견할 때 자신의 범행 역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또 서귀포불교대학 재학생들은 성도제일을 앞두고 매년 1월 초에 철야명정진 수련회를 개최한다. 수련회는 발우공양은 기본이고 불자의 서원과 발원문 작성, 포살자자, 웰다잉 강의, 유서쓰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재학생들에게 불성의 씨앗을 심어주고 있다.

또한 현 전 학장은 격월로 신행과 법회를 봉행하는 프로그램도 도입했다. 신행법회는 둘째 주 일요일마다 교수 스님들의 사찰을 순회하며 다양한 수행을 체험해볼 수 있다. 이론공부만으로는 부족하기 쉬운 수행에 대한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했다. 불교대학이 단지 불교지식만 전달하는 공간이 아니라 수행을 통해 학생들에게 진정한 불성을 심을 수 있도록 밑거름을 만드는 데 주력하고자 했다.

이것이 끝이 아니다. 현 前 학장은 "불교대학을 졸업했다면 기본적인 경전을 독송할 줄 알아야 하지 않을까요. 그것이 불자의 기본 도리라고 생각합니다"고 말했다. 그래서 졸업을 앞둔 학생들은 불교대학 강의실에서 경전 암송 시험을 치른다. 시험과목에 선정된 경전은 반야심경·천수경·이산·해연선사발원문 등 총 6개로 표교사가 시험관으로 나서 심사를 한다.

"지난 2005년부터 경전 암송시험을 치르고 있습니다. 각 경전별로 완벽하게 독송해야 완독 점수를 받을 수 있을 정도로 학사관리가 철저하기로 유명합니다. 경전암송 이외에도 사경, 출석 등 6가지 신행 점수를 종합해 졸업식 때 시상하고 있고요. 최우수상은 제가 경전을 쓴 8곡 병풍을 선물로 선사합니다. 최고 인기죠. 경전 암송은 시험공부처럼 억지로 외운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신심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야 해요. 경전을 모두 외웠다고 자만해 빠지면 오히려 독이 되기에 공덕을 쌓는 마음가짐으로 생활 속에서 수지독송하는 습관을 들이고자 경전 암송시

**2003년 서귀포불교대학 학장 취임**  
**2년 뒤 90명 수용 가능한 새 보금자리로**  
**등기부 등본 확인안해 한때 경매 위기도**  
**1080배 등 힘든 수행체험 과정 도입 호응**  
**2009년 (사)불타대상 수상자로 선정**  
**2천여 졸업생 배출... 인재 불사에 앞장**  
**2005년부터 가훈 휘호 신혼부부에게 보시**  
**2013년 학장직 퇴임 후 신행에 전념**

마을금고 2층 건물을 임대해서 쓰다 2005년 6월 동흥동으로 이전, 약 3배에 달하는 80평 규모의 건물로 이사를 가게 된다. 9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강의실과 참선실, 휴게실, 행정실 등을 갖춘 새 보금자리를 마련하게 된 것이다. 개교 5년 만에 학교 이전을 통한 새로운 출발의 전기를 마련한 야심찬 도전이었다. 이것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학장을 비롯해 모든 임원들이 무보수로 봉사하는 마음가짐으로 입학하며 입학생들의 입학금을 조금씩 모아 목돈을 마련해 뒀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현 건물의 매입을 맡았던 임원이 등기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건물이 담보로 잡혀있다는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설상가상으로 법원에 경매 공고가 났다.

"12기가 졸업할 시기였는데 학생들에게 얼마나 미안한 마음이 들던지 지금도 생각하고 싶지 않은 기억입니다. 임원들과 해결방안을 두고 머리를 맞췄지만 포퓰러한 방법이 나오지 않았어요. 경매에 참여를 했고 혼자 법원에 가서 결과를 지켜봤지요. 그 생각이 한 번 더 지금도 조마조마합니다. 당시 입찰에 참여했던 곳 중에 교회도 있었지만 결국 우리가 낙찰받게

### KS정품 연등전선 최저가 생산 판매

연등전선 전문 생산업체인 (주)삼정전기과 계약 체결로 KS정품 연등전선을 최저의 가격으로 공급해 드리겠습니다.

색상 : 회색선  
선굵기 : 1.5mm<sup>2</sup>

방수전선-22cm	방수전선-25cm	방수전선-30cm
할인가 65,000원 (5줄이상) 정가 75,000원 • 방수전선 1줄 : 50구 • 길이 : 11m / 6cm연등	할인가 65,000원 (5줄이상) 정가 75,000원 • 방수전선 1줄 : 50구 • 길이 : 12.5m / 8cm연등	할인가 65,000원 (5줄이상) 정가 75,000원 • 방수전선 1줄 : 50구 • 길이 : 15m / 8cm연등
방수전선-50cm	방수전선-1m	방수전선-2m
할인가 75,000원 (5줄이상) 정가 90,000원 • 방수전선 1줄 : 50구 • 길이 : 25m / 13cm연등	할인가 90,000원 (5줄이상) 정가 100,000원 • 방수전선 1줄 : 50구 • 길이 : 50m / 야외용	할인가 80,000원 (5줄이상) 정가 90,000원 • 방수전선 1줄 : 25구 • 길이 : 50m / 야외용

### 비닐만월등

판매가 150,000원

- 1BOX : 100개
- 등지름 : 30cm

할인가 3,200원 (30개이상)  
정가 3,800원

- 1BOX : 30개
- 등지름 : 24cm
- 별장, 보라, 주황, 분홍, 진분홍, 흰색

▲바림등(8cm)

국산 LED전구	전구(10W)	PVC영가등표(100매)	PVC등표(100매)
100,000원 1BOX : 50개 색상 : 햇불색/주황색	@ 250원 1BOX : 100개 제조원 : 베트남	내지 12,000원 집계부착 20,000원 크기 : 8.5cm x 21cm	내지 12,000원 집계부착 20,000원 크기 : 8.5cm x 21cm • 진분홍, 연분홍

연등속지 백색 1묶음

6cm 3,500원	8cm 4,000원	10.5cm 4,500원	12cm 10,000원
------------	------------	---------------	--------------

※1묶음당 100개를 만들 수 있음.

한지 칼라등지 완성품

8cm 27,000원	10.5cm 38,000원
-------------	----------------

※1묶음당 50개를 만들 수 있음.

PVC등표 전용펜

판매가 2,000원

- 제조사 : 시쿠라 (일본)
- 가는 글씨와 굵은 글씨를 쓸 수 있는 양면 펜.
- (\*검정색)

### 민음과 정직의 산실!

그곳은 동진기획 · 붓다쇼핑

연등 할인가

• 바림등(6cm) @ 2,700원 (60개이상)	• 비닐만월등 A형(100개) 150,000원
• 바림등(8cm) @ 3,200원 (30개이상)	• 비닐만월등(국산100개) 170,000원
• 바림등(10.5cm) @ 6,000원 (16개이상)	• 연화만월등(100개) 200,000원
• 바림등(13cm) @ 13,000원 (6개이상)	• 영가만월등(100개) 200,000원
• 바림등(20cm) @ 35,000원 (2개이상)	• 장만월등(국산100개) 220,000원
• 바림등(30cm) @ 80,000원 (1개이상)	• 오색청사초롱(100개) 240,000원
• 공단등(6cm) @ 3,000원 (60개이상)	• 청사초롱등(100개) 250,000원
• 공단등(8cm) @ 3,600원 (30개이상)	
• 공단등(10.5cm) @ 7,000원 (16개이상)	
• 공단등(13cm) @ 15,000원 (6개이상)	

등철사 (100개)  
6cm 75,000원 / 8cm 80,000원  
10.5cm 85,000원 / 12cm 100,000원

일반연일 (소/대) 6,000원  
연분홍/진분홍/노랑/주황/빨강/녹색/흰색

바림연일/한지바림연일  
7,500원 / 8,500원  
연분홍/진분홍/노랑/주황/빨강/녹색/흰색

천바림연일 30,000원  
진분홍/주황/빨강/연분홍/보라  
수량 : 약 1,200정